

제 1부 학교와 교육의 변화

1. 학교제도,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공장’과 같은 모습과 분위기가 아니라, 즐겁고 편안하며 창의성이 샘솟는 공간, 모든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돕는 곳이 될 수는 없을까?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학교제도의 기본틀

- 기본학제 - 단선형 , 유럽은 - 복선형
- 학제와 관련하여 기간학제(수업연한)조정, 취학연령 조정, 신학기제 조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6-3-3-4 현학제의 문제점
 - 수업연한이 길어 청소년의 사회 진출이 늦다. 아동의 성장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며, 만 18세부터 참정권이 부여되므로 고등학교 졸업이 그 전에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획일적인 수업연한이 개인의 능력차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단선형 학제가 대학 진학 수요를 증가시켜 사교육과 대학입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 만 6세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주장 : 아동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만 5세로 취학하면 유아 사교육비 절감 효과 기대, 산업인력 조기 확충, 세계적인 추세는 만 6세 취학, 만 5세 아동의 가정 보호 필요성도 있음.
 - 3월 신학기제를 9월로 변경 : 3월 신학기제가 외국의 9월 신학기제와 맞지 않아 국제적 통용성이 떨어짐. 2월 수업 부실 운영. 교원 인사 시기의 부절절. 3월의 기후 문제. 특정 학년 학생에 대한 불이익과 사회적 갈등을 감수할 만큼 경제적 편익이 큰지, 교육적 효과는 어떤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치적 상황과 교육 외적인 측면의 고려로 의제 제기가 반복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지금의 학교제도가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걸맞은 체제였다면, 앞으로의 학교는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학교제도와 학교교육의 특징

- 1945년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의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민족교육이 억제되었기에, 학교 신설과 학생 수용에 대한 요구가 가히 폭발적이었다.

- 공립학교를 세우면서 동시에 중등학교 단계에서 사립학교의 설립 권장. 사학도 공학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관리(등록금 동일, 교사 급여 동일)
- 사학에 교육 재정을 대폭 투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보장했으나 사학의 자율성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옴.
- 초등학교는 대규모 학교, 2부제 수업 운영등으로 교육의 질 면에서 문제점 노출
- 1980년 대학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였으나 1987년에 폐지됨.
- 학교가 수용의 개념이 컸던 시기에는 교육의 질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의무교육 완성에 이어 중등교육의 보편화, 그리고 고등교육의 팽창과 대중화를 가져왔다.
- 2020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과거에는 학교제도에서 양적인 팽창과 수용이 긴급한 일이었지만, 점차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한국교육이 성장해 가고 있다.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개별화 교육(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교제도가 요청되고 있다.

학년제도와 학급제도는 당연한 것인가

- 현재는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우면 학년을 진급하도록 되어 있다.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이 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과목 통과 혹은 학년 수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고교학점제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낯선 개념이다.
- 학년에 따라 매년 담임교사가 변동되는데 중국에서는 3년 동안 담임교사가 교체되지 않는 담임연임제가 일반적이다. 담임연임제가 학생의 이해와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장점이 있으나, 단점도 충분히 예상된다. 담임교사가 매년 바뀌는 것도 사실 고정관념일 수 있다.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때도 있었고, 필요에 따라 담임연임제나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 선택과목을 학생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혼합형태다. 집중이수제 운영으로 특정학기에만 과목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담임 학급의 학생을 1학기 수업에서는 만나지 못하다가 2학기 수업에서 만나게 되어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 실질적인 의미에서 과목 선택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교과교실제는 교사는 머물고 학생은 학급을 통째로 이동하는 방식에 그친다. 교사로테이션이 아니라 학생로테이션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 2019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

고 이를 선택하는 방식에서는 동일한 교육과정과 관리 개념의 학급 운영 방식은 전환되어야 한다.

-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이 운영되는 2학년을 대상으로 교사가 13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멘토교사제를 시도하였다. 학급의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어드바이저로서의 담임 개념이다. 더욱 새로운 시도와 경험이 나타날 것이다.

학교의 경계와 프레임을 넘어

미래의 학교 체제 예측(2000년 기준 20년 후 예측)

현 체제 유지	학교 재편(re-schooling)	탈학교(de-schooling)
1안 견고한 관료제적 학교체제	3안 사회 핵심 센터로서의 학교	5안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2안 시장 원리 적용 모델 확대	4안 초점화된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6안 교사의 탈출, 학교 붕괴

- 2020년 현재의 학교체제는 현 체제유지 속에서 학교 재편의 양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 아직은 학교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고, 과거의 학교조직의 구조와 양상은 상당 부분 견고하게 남아 있다. 다시 20년 후를 상상해 보자. 공인된 졸업장을 발급하는 기능 외에 학교가 진정한 학습과 성장의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홈스쿨링, 대안학교, 지역과 사회에서의 배움 등 다양한 배움의 선택지가 더욱 확산되어 학교와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될 수 있다.
- 2010년대에는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전개에 따라 원격교육과 블랜디드 러닝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학생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이제 피부로 와닿고 있다.
- 학교제도에 있어서 학교 자체의 변화와 학교를 넘어선 변화 모두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학교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 첫째,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수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탐색해보도록 하는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을 통과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그러한 예이다. 초등학교부터 중시되는 기초학력 또한 개별적인 진단과 지도가 중요하며, 중학교에서도 교과별 기초학력 다지기는 역시 중요하다. 앞으로 AI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개인별 학습 성취 수준의 분석과 평가, 진로지도등이 더욱 중시될 전망이다.
 - 둘째, 새로운 학교와 교육활동에 대한 상상과 시도가 필요하다. 최근 수업 혁신에 대한 관심은 공간 혁신으로 이어졌고, 교육에 필요한 공간 구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학교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셋째, 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에 학교가, 그리고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의 운영과 교육활동은 상위 법규,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독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자율적인 부분이 부족하였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전제로 출발한 학교자율경영의 논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부상한 학교자치의 개념은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있다. 학교의 운영과 교육에 있어서 교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좋은 학교와 학습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특징	• 관료화된 학교교육 틀을 유지하면서 혁신 적 변화보다는 점진 적, 지엽적 개선	•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 하며 자유경쟁 원리의 적용을 통해 학교교육의 전면적 혁신 추구	• 분권적 공공성 실현을 위 한 시민 공동체 주도의 학 교교육 혁신 추구
학생	• 미성숙한 존재로서 타율적 관리의 대상 • 교육과정 개발에서 배제된 존재	• 학습 주체로서의 학생 •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자 • 학습의 소비자이자 선택 과 책임의 주체	• 사회적 대화 참여자로서 의 학생 •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는 책임을 지닌 시민
교사	• 공교육 제도에서 지 식 교육의 권위자	• 학생 중심 학습을 위 한 촉진자	• 앞의 과정과 실천을 이끄 는 지혜를 갖춘 전문가
교육내용	• 학문으로부터 파생 된 교과 • 교과중심 교육과정	• 교과지식 습득, 이론 지식을 넘어 수행 능력, 역량을 강조	• 수행 능력을 넘어 자질과 성향 강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실천 역량 강조
학교	• 독점적 정규 학습기 관 • 관료적 학습조직	• 학습 네트워크 중 하 나 • 탈 관료적, 유동적, 수 평적 구조	• 유연하고 수평적이며 개 방적인 사회적 학습센타 • 학습 생태계의 핵심
에듀테크	• 기존 체제 유지 및 본질적 도입	• 효율성,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개방적 수용 • 네트워크성 강화	• 공동체 가치 지향성 수용 • 네트워크성 강화

2. 교육과정 변화로 시작하는 교육 혁신

-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은 너무 많은 내용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너무나 학문 지향적이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학업에 흥미를 잃곤 한다. 교육을 혁신하는 일은 교육과정 변화에서 시작한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정책의 대상이 되었나

- 국가와 같은 정치조직이 만들어지고 산업혁명을 계기로 가내 수공업을 탈피하여 대규모 공장 노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이라는 정체성 형성과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 소통 능력, 글을 읽고 셈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다. 근면과 성실 등 태도를 익히는 일도 필수적이었다. 국가는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학교에 불러 모았다. 이것이 공교육의 출발이다.
-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입학할 허용하고, 공적 비용을 들여서, 공통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공통 교육과정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하게 되는 일은 자연스러웠다. 공교육 중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반드시 받도록 요구하는, 즉 최소의 필수 교육을 의무교육이라고 한다.
- 공교육과 의무교육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의 관심사가 되었고, 교육과정은 정책 대상이 되었다.

교육과정(curriculum)은 무엇인가

- 교과(subject)는 학문 중심적인데 시민교육이나 생태교육 등 학문 중심적이지 않은 과목도 있다.
- 교육목표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배울 교과를 선정한다. 한국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문서는 교육부에서 펴내는 국가교육과정이다.
-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 목표 :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부합하는 내용이 학교에서 배울 교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과, 수업시간 배당등을 묶어서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한다. 총론을 결정한 후 교과별로 교과목표,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성취 기준등을 개발하는데 이를 각론이라고 한다.
- 정리하자면,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은 교육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교과, 시간배당, 교과 내용등을 결정하는 일이다.

교육의 핵심 요소, 그리고 정치성

- 교육의 핵심 요소는 교육과정과 교원이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의 교원 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교육과정은 교원, 교원양성대학과 교수, 교육시설 및 기자재 산업, 출판산업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 교과를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일은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어 매우 정치적이다.

학문 중심 교과 지식과 역량

- 학력에서 역량으로 또는 지식에서 역량으로라는 주장을 근래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지식 없이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없다. 따라서 지식과 역량은 전혀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오히려 역량은 지식을 포함하되, 지식의 어떤 면을 새삼 강조하거나, 다른 어떤 면을 약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개념이다.
- 예를 들어 문제풀이만 하는 식으로 수학 지식을 학습하는 일은 줄이고, 생활 속에서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을 통해서 역량을 길러야 한다.
- 세가지 핵심 역량:
 - 세계화와 정보화로 상호 의존성이 점점 심화 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언어나 테크놀로지같은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타인, 특히 이질적인 집단의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역량.
 - 자신의 삶을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 위치 짓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책임있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

교육과정 결정 방식 변화와 교육 혁신

-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학문을 하는 일과 초 중고 학생들이 교과를 학습하는일은 당연히 같지 않다. 교과는 많은 학문적 개념 또는 지식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현상 속에서 학문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생활 수학이나 생활 물리학이 교과로서 적합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결정은 교육목표와 지향하는 인간상까지 소수의 전문가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어떻게든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결정역역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목표와 지향하는 인간상은 가능한한 많은 시민이 함께 토론하면서 결정하는 편이 옳다.
- 어떻게와 관련해서도 현재처럼 소수의 대학 교수나 교과 전문가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들의 결정은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시각에 따라 제한될 필요가 있다. 교사나 학생 또 학부모와 시민의 입장에서 교과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은 학생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가 교육과정을 특색있게 운영하기 곤란한 조건이 있다. 국가 교육과정을 대강화하여 학교가 나름대로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시작될 때 교육 혁신의 길이 열릴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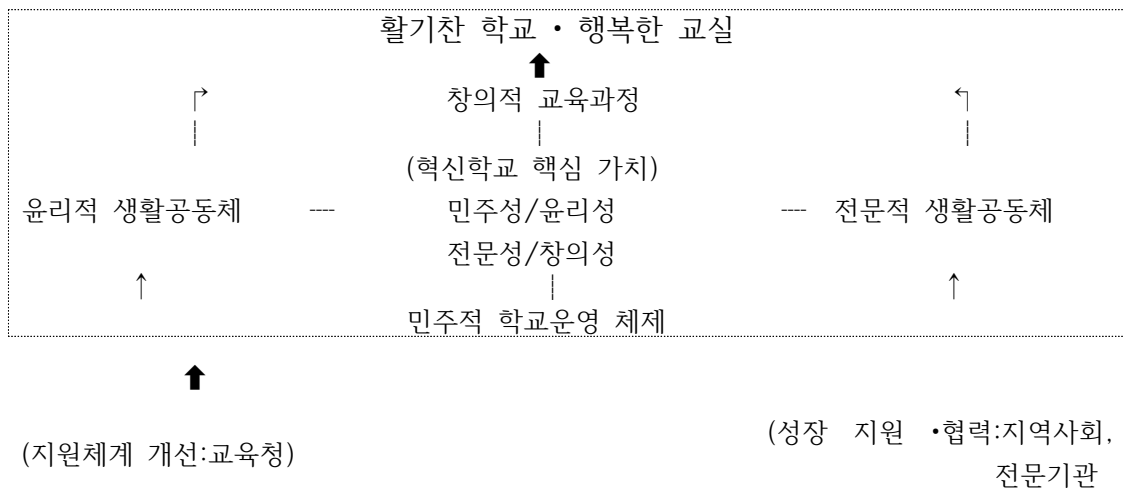
다.

3. 혁신학교는 교육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 2017년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채택하였고, 전략적 방안으로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그 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이러한 정책화와 양적 확산의 과정에서, 혁신학교는 돌출된 여러 가지 쟁점을 헤쳐 나가면서 질적으로 심화해야 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학교와의 관계 정립과 미래사회의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모델의 제시를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혁신학교가 새로운 교육 지층이 되기까지

- 교육부는 혁신학교를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교육과정 혁신과 학교운영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 혁신학교는 기존의 연구시범학교와 달리 단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변화를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혁신학교가 교육정책으로 발화하여 공교육 혁신의 모델로서 새로운 지층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
- 첫째, 20세기 말부터 현장에서 발아한 여러 자생적 교육운동.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대학입시경쟁과 도구화된 학교교육에 대한 탈출구 필요. 그 출구는 폐교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나타남.
- 둘째, 1995년을 기점으로 파상적으로 전개된 대안교육운동은 해외의 이론과 실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교육의 본질 찾기와 교육의 다른 길 모색에 불을 지폈다.

(예: 발도르프 학교, 전원학사, 몬테소리, 프레네 학교, 서머힐 학교, 독일의 헬레네랑에 학교). 이러한 이론과 실천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쟁교육과 교육 주체에 대한 대상화가 가져온 심각한 교육의 병리현상으로부터 탈출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혁신학교 활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 셋째, 1991년 교육자치제부활과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중시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2006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접선거로 바뀌면서 시·도 교육청이 국가수준의 교육 방향과 철학으로부터 독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종합하면 우리나라 교육을 둘러싼 입시 지옥, 경쟁교육, 교실붕괴, 사교육 팽창, 교육의 양극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의 흐름과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교사단체, 사회시민단체가 결합하였다. 여기에 주민직선교육감제의 도입이라는 환경이 결합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이 발화되고 마침내 새로운 교육지층을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는 어떻게 다른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

구분	혁신학교	일반학교
학급당 학생수	25명 내외	대체로 30명 내외
교장과 교직원문화	수평적	대체로 교장에게 권한 집중
교사의 전문성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음	교사의 역량에 따라 차이 존재
교육과정, 수업형태	다양화·특성화·맞춤형 학생중심 프로젝트 운영	교사의 역량에 따라 차이 존재
교육내용 초점	학생 개개인의 행복과 관심 집중	대체로 성적 중심
교원행정업무	행정 전담 실무사 투입과 행정업무 전담팀 운영으로 교원행정업무 경감	일부 과도한 행정업무 발생
교육청 재정지원	지속적·안정적 지원	확일적인 기준으로 예산 지원
학부모 관계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교육 지속적으로 추진	학교나 교사마다 차이
유-초-중-고 연계	혁신학교 클러스터로 묶어 연계 작업 활발히 진행	대체로 특별한 연계 작업 없음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 축제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연결고리 존재	학교나 교사마다 차이
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하며 실적 위주의 평가보다는 성찰과 반성 위주 평가 실시	감사 이외의 평가 기능은 거의 없으나 확일적인 교육청 평가 존재

혁신학교의 탈지층화로 나타난 쟁점들

- 첫째,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련된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현장에서 얇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려는 학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혁신학교의 철학과 사회적 일상 사이에서 간극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기존 학력관과 학부모의 인식변화, 그리고 그 원천이 되는 대입제도와 학벌주의, 학력주의 **둘째**, 사회가 전반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 둘째, 학업성취와 관련된 것이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서 혁신학교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혁신학교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기존의 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논술·서술형 평가라든지 수행평가를 중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강의식, 교사 중심의 수업에 익숙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혁신학교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 또는 노는 학교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혁신학교가 학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셋째, 혁신학교의 일반화와 관련된 것이다. 혁신학교의 모델학교화 지지자들은 혁신학교별 역량의 편차가 심한 상태에서 양적 확산의 일반화보다는 개별 혁신학교의 질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위로부터 강요되는 운동이 아니라 교원의 자발성에 터하여 진행되는 운동, 전국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는 운동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라는 조건 속에서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는 운동, 교실이나 교수방법을 바꾸려는 운동이 아니라 단위학교 문화를 바꾸려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미래를 향한 혁신학교의 재영토화

- 첫째, 일반학교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 둘째, 고등학교 단계에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다.
- 셋째,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넷째, 미래학교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혁신학교, 교육의 희망봉이 될 것인가

- 혁신학교는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가졌다고보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교사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학생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 되며,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발성을 만들어 주어 교육생태계를 복원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학교는 우리나라 기존 교육의 지층 위에 새로운 지층을 형성해 왔다. 달리 말하면, 혁신학교는 기존 교육의 지형을 바꾸는 지렛대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제 혁신학교가 우리나라 학교개혁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라치기와 관계없이 혁신의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교육의 희망봉이 되기를 기대해보면 어떨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집단적 자발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그 성과들을 축적, 재생산,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의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교사의 전문성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교사가 된 후에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능력 계발을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다.
- 직업의 안정성이 교직 선택의 큰 동기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 사명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과연 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교사가 되는 길

- 초등 교사 : 교육대학, 중등교사 :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 1990년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 임용 폐지
- 교원 양성의 중요성 :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는 학교의 변화, 학습자의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맞는 교육을 위해 가르치는 사람이 잘 준비되어야 함.
- 교사 양성과 관련된 쟁점
 - 첫째, 교사양성의 체제는 예비교사를 기르는 기관과 제도에 대한 것이다. 오랫동안 공고화된 교대와 사대 중심의 교원양성체제는, 초등과 중등의 분리 양성, 독립된 대학에서의 교사양성이 과연 시대적합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있음. 교대의 경우는 다양한 경험과 폭 넓은 시야 측면에서의 우려, 전문가보다는 기술자를 기르는 데 적합한 모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사대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키우면서 교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에 기존의 4년 과정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전통적인 교과로 분리된 기존의 교과 교육과 체제로는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맞는 교사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 둘째, 교사양성의 교육과정은 예비교사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것이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론에 치우쳐 있다,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셋째, 교사양성에서의 수급은 교사 수요와 공급을 의미한다. 중등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많은 과잉공급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등은 학령아동 수의 급감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목적형 기관인 교대는 초등교사 외에는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등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부분 국립인 교대는 정원감축으로 수급 상황이 조절될 수 있으나 가뜰이나 작은 교

대가 더 작은 학교가 될 전망이다. 중등은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의 교사양성 규모 축소로 일단 가닥이 잡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급, 수요에 맞는 탄력적 교원 수급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 넷째, 교사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분명한 것은 교직 사명감을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는 기본이며,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와 수업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전문가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양성은 준비교육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성된 교사를 만들 수는 없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현직교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양성 단계와 현직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 교육청의 교사의 핵심 역량 : 교수 역량(교과 전문성, 수업 설계 및 운영, 디지털 활용능력), 생활교육 역량(생활교육, 진로교육), 공동체 역량(비전 수립 및 공유, 소통 및 협력, 참여와 책임 의식, 네트워크), 자기개발 역량(변화대응, 학습과 연구, 자기 관리)

시험에 합격하면 교사가 된다

- 1990년에 국립 교·사대 졸업자의 무시험 임용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자마자 곧바로 공개경쟁시험이 도입되었다.
- 외국에서는 계약제 임용이 대부분이며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로 교사를 전형하여 선발한다. 우리나라처럼 지필 성적 중심으로 교사를 선발한다면 인지적 능력은 출중할 수 있으나,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이나 자질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 현재의 시험 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암기 중심의 교사 준비, 학원에서 배우는 교사의 양산 우려가 있다. 또한 교대와 사대에서 배우는 것과 관계없는 임용 준비와 선발이 이루어지는 점은 문제다.
- 근본적으로는 1차 전형을 Pass/Fail 로 운영하고 2차 전형에서 선발, 2차 전형의 비중 상향, 다양한 경험 활동 반영, 대학 성적 반영, 집단 토론 도입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선발은 적격자 선발과 함께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할 교사의 확보도 중요하다. 초등의 경우 현재 1차에서 지역 가산점이 있으나 중등은 전무하며 지역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

교사는 계속 배운다

교사 전문성 개발(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양성교육	현직교육 연수, 장학, 연구(학습), 공동체학습			
	입직/입문교육		경영/정책 전문성 퇴직준비	
	예비교사	신규임용	현직교사	승진/퇴임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수석교사	교장

- 현직교육 : 연수(자격연수, 직무연수), 장학(기관 장학, 교내 장학-수업장학, 동료장학), 연구(개인 및 집단)
- 교직적용과 역량 강화 측면에서 현재의 연수제도는 미약하다.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습교사제의 도입,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나 내용적 강화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교사의 성장 동기를 촉진하고 자기계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연수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학습기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연수 내용과 운영 등이 있다.

교사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려면

- 교사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격제도나 승진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교사의 자격, 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는 경로의존성이 높고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변화가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는 교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로 이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를 기르고, 더욱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공동체를 이끄는 멋진 리더로 양성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하다.

교사가 희망이다

-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교사는 새로운 도전을 하였다. 원격수업의 방법과 기술을 학습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시간 조·종례와 수업을 운영하였다.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어려움, 심화되는 교육격차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 교사 혼자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업무 분장과 일처리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와 교사를 돕는 행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가정과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도 교육의 희망은 교사에게 있다. 교사는 성찰하는 실천가로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전문성을 교직생애 동안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전문가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